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주민만족도 조사 연구

A Study on the Inhabitant's Satisfaction of Community Facilities Demonstration Project for Rural Elderly

김진환* 박중신** 송서호***
Kim, Jin-Hwan* Park, Chung-Shin Song, Seo-Ho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conditions of the community facilities constructed by demonstration project for rural elderly that were promoted for the last two years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The type of community facilities are community living home, community food service facility and small bath house. And it was accomplished satisfaction survey for analyzing the effects of demonstration project focused on inhabitants and users of community facilities constructed by demonstration projec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atisfaction index of community facilities was evaluated high level in generally. Second, Inhabitants and users of facilities were presented high level satisfaction in humanity sector, especially. Third, It should be to establish maintenance and management plan such as supporting of linkage program and operation cost for secure the sustainability.

Consequently, the implementation of community facilities demonstration project to improve the living conditions of rural elderly is entirely appropriat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considered to promoting demonstration project for improving quality of the facilities and securing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주요어 : 농촌 고령자, 고령자 공동시설, 주민만족도,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Keywords : Rural elderly, Elderly community facilities, Inhabitant's satisfaction, Community facilities demonstration project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농촌 지역은 65세 이상 인구가 2000년 138만명(14.7%)에서 2010년 183만명(20.9%)으로 증가하여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독거가구의 비율 또한 2000년 28만 가구(9.2%)에서 2010년 44만 가구(13.3%)로 증가하고 있다.¹⁾ 또한, 도시 지역과의 소득격차 확대, 다문화 가정의 증가, 핵가족화로 인한 독거노인의 급증 등 사회 환경 변화와 함께 복지 분야에서 취약계층이 확연히 증가하는 현실적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 고령자의 생활여건은 2010년 기준 3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의 비율이 도시지역의 6.6%에 비해 농촌 지역은 20.7%²⁾로 주택 노후화가 심각하고, 기름보일러 사용비율은 50.9%로서 도시지역(16.8%)³⁾에 비해 3배 이상 난방비 부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 또한, 농촌 고령자의 1인 1일당 총 식품섭취량은 도시 지역 1,308.8g에 비해 농촌지역은 1,245.4g이며(2008년), 건강수준 또한 농촌 노인들은 43.8%(2012년)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⁴⁾ 영양불균형이 우려된다. 위생여건은 목욕시설 없는 가구의 비율이 2010년 기준 도시지역의 0.4%에 비해 농촌지역은 2.1%⁵⁾에 달하는 등 주거·영양·위생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농촌의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농촌지역 거주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고 함)에서는 2014

* 정회원,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연구원
(교신저자, E-mail : plan0212@ekr.or.kr)
** 정회원, ㈜마을제작소 대표이사, 공학박사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수석연구원

본 연구는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건축계획기준 개발” 연구의 일부임

1)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2) 이창호, 농어촌 주택개발정책의 현황과 개선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4, p.5

3) 김태완 외 공역, 농어촌의 보건복지수준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p.95

4) 통계청·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08, 2012

5)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년부터 농촌 공동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농촌 고령자 노인인구의 복지향상을 위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함)’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농촌 고령자를 위한 공동시설 시범사업은 그동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농촌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필요에 의한 시설을 개별적으로 지원하거나 다습등지복지재단과 같은 관련단체를 통해서 공동생활홈을 조성하는 등의 방식과 달리 정부가 별도의 예산으로 직접 단독사업을 통해 공동시설 조성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으며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향후 본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보완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한다면 주거 및 복지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공동시설을 충분히 확충하기 위한 사업기반과 토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시범사업을 통해 조성된 공동시설의 이용(거주)자를 대상으로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체감하는 시범사업의 효과와 향후 농촌지역에 공동시설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통해 조성된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 등 공동시설의 주민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농식품부의 사업추진 방안과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주요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주민만족도 조사는 2014년 시범사업 대상지 중에서 준공이 완료되어 운영 중인 공동시설 총 20개소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선정된 20개소의 실제 시설을 이용 또는 거주하고 있는 총 255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2015년 6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 총 12일에 걸쳐⁶⁾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2.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의 특성

2.1 시범사업의 주요내용⁷⁾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은 국정과제(52.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로써 농식품부에서 고령자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2014년부터 시작되었다. 농촌 지역의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 고령자 친화형 공동시설 지원을 통해 농촌 고령자의 주거·영양·위생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도모를 목표로 한다.

시범사업 지원 대상 공동시설의 유형은 고령자의 열악한 주거·영양·위생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으로서 유형별 각각 120백만원, 50백만원, 200백만원을 국비 50%, 지방비 50%의 조건으로 지원한다. 단, 시설별 지원 사업비는 시설의 규모, 유형, 지역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농식품부에서는 지방비 확대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5년이며, 원칙적으로 사업이 선정된 연도의 1년 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비 확보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지 선정은 전국단위의 공모를 통해 당해연도의 연초에 선정하며, 시군은 제안서 작성 및 신청, 시도는 자체 심의를 실시하고 농식품부에 제출, 농식품부는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2014년 시범사업의 시도별 대상지 현황은 <Table 1>과 같다⁸⁾.

Table 1. Current conditions of demonstration project by province('14)

시도	계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
계	75	35	26	14
세종	1	-	-	1
경기	3	-	1	2
강원	3	3	-	-
충북	2	-	2	-
충남	4	2	1	1
전북	14	7	7	-
전남	10	6	2	2
경북	19	7	8	4
경남	18	10	4	4
제주	1	-	1	-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된 지자체는 사업 가이드라인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수립하고 건축공사를 시행하게 된다.

2014년 시범사업의 추진체계는 <Figure 1>과 같이 농식품부는 사업주관 및 예산지원의 역할을 하며, 사업시행자인 시군은 주민의견 수렴을 기반으로 사업계획 및 설계, 준공 후 운영·관리 주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특히 농식품부는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전반 자문·모니터링을 위해 총괄계획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⁹⁾.

6) 마을별 조사일자 : 강원 6월 11일~12일, 전북 6월 12일~15일, 경북 6월 8일~10일, 경남 6월 10일~12일, 전남 6월 9일, 제주 6월 17일, 지역별 조사원에 의해 실시

7) 농림축산식품부, “2014년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추진방안” 참고

8) 2015년 시범사업은 2015년 2월 대상지 선정과정을 거쳐 2015년 9월 현재 총 74개소(공동생활홈 34개소, 공동급식시설 27개소, 작은목욕탕 13개소)를 추진 중임

9) 2015년 시범사업에서는 상기의 사업 추진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총괄계획가에 의한 기획설계 과정이 추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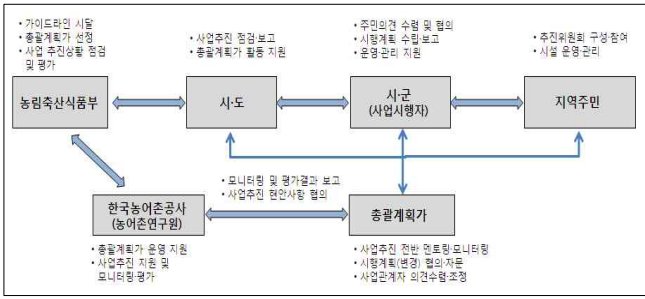


Figure 1. Promotion system of demonstration project

2.2 시범사업의 추진방향

시범사업의 추진방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유희 공동시설을 적극 활용한다. 이는 농촌 지역에 노후화 정도가 심각한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 유희 공동시설에 대하여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촌 공동시설 활용을 도모하고, 마을공동체의 합의에 따른 유지관리, 수혜자 선정, 이용료 부과 등 시설의 운영·관리 시스템을 고안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고령자의 이용편의를 감안한 입지선정 및 설계를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시설이 밀집한 마을 또는 읍면소재지의 중심부에 공동시설을 설치하고, 무장애디자인(Barrier Free Design) 또는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셋째, 복지·의료·문화 등 체감형 서비스를 연계하여 공동시설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운영·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는 복지·의료·문화 등의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이 곤란한 농촌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고령자가 모이는 공동시설에 의료(방문진료 등), 교육(한글교실 등), 문화(요가, 손공예 등) 등과 연계하여 서비스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3. 주민만족도 조사 분석

3.1 조사항목 및 조사방식

주민만족도 조사의 목적은 시설을 이용(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령자의 주거·영양·위생 여건 개선이라는 시범사업의 근본적인 사업목표를 실제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사항목은 해당 공동시설을 이용(거주)하기 이전과 이후의 비교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계량화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또한, 시설의 공간적 측면, 이용편리성 측면,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세부항목을 구성하였다. 시설 유형별로는 공동생활홈은 거주, 정서, 냉난방, 영양 및 위생, 유지관리의 5개 항목, 공동급식시설은 시설, 정서, 영양, 안전, 유지관리, 시설이용의 6개 항목, 작은목욕탕은 시설, 위생, 안전, 유지관리의 4개 항목으로 설정하였다¹⁰⁾.

10) 조사항목 설정은 본 연구진에 의해 1차 설계하였으며, 시범사

한편, 각 세부항목 간에는 중요도에 따라 배점을 달리 적용하여 5점과 10점으로 구분하고,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시설 유형별·대상지별 종합 만족도를 도출하였다.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에 관한 내용은 <Table 4>와 같다. 세부항목별 조사방식은 5점 척도로 구성된 설문지를 통해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세부항목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술형 항목을 구성하여 조사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¹¹⁾.

3.2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상기에서 언급하였듯이 2014년 시범사업을 통해 준공된 사업대상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Table 2>와 같다.

조사 대상지 선정기준은 총 75개소 중 '15년 5월까지 준공 후 최소 1개월 이상 운영 중인 시설로 정하였으며, '15년 5월까지 준공되지 않은 시설과 준공은 되었으나 운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것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최종 선정된 대상지는 공동생활홈 5개소, 공동급식시설 13개소, 작은목욕탕 2개소 등 총 20개소이다. 조사 대상자는 총 255명이며, 이 중 공동생활홈의 조사대상자는 시설에 거주하는 거주자 21명이고 공동급식시설 및 작은목욕탕은 시설을 이용하는 마을주민 234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Table 2. Target facilities of inhabitant's satisfaction survey

시설	대상마을	설문부수
공동생활홈 (5개소)	강원도 영월군 북면 공기2리 마을	3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2리 마을	3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봉은마을	8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내산마을	2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가산마을	5
	소 계	21
공동급식시설 (13개소)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수하1리 마을	20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마양리 마을	15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장전마을	9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면 초동마을	10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두문마을	10
	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월삼마을	21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죽산마을	26
	경상북도 김천시 지례면 삼실마을	10
	경상북도 의성군 가음면 가산3리	20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세장마을	9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어로1리 마을	20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연천마을	20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마을	5
	소 계	195
작은목욕탕 (2개소)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우금리	19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진하마을	20
	소 계	39
	합 계	255

업의 추진주체인 농식품부의 담당자, 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함

11) 기술형 설문항목은 공동생활홈의 냉난방 비용, 영양 및 위생 변화, 거주비용, 공동급식시설의 식사 인원, 반찬의 가지 수, 식사비용, 작은목욕탕의 목욕횟수, 이용료 등임

Table 3. Pictures of target facilities

시설 유형	사진 이미지	시설 유형	사진 이미지	시설 유형	사진 이미지
공 동 생 활 홈	A-1 강원도 영월군 북면 공기2리 	공 동 급 식 시 설	B-3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장전마을 	공 동 급 식 시 설	B-10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세장마을 
	A-2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2리 		B-4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면 초동마을 		B-11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어로1리 
	A-3 전라북도 김제시 급산면 봉은마을 		B-5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두문마을 		B-12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연천마을 
	A-4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내산마을 		B-6 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원삼마을 		B-13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A-5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가산마을 		B-7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죽산마을 		작 은 목 욕 탕
공 동 급 식 시 설	B-1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수하1리 	B-8 경상북도 김천시 지례면 삼실마을 	C-2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진하마을 		
	B-2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마양리 	B-9 경상북도 의성군 가음면 가산3리 			

3.3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

(1) 거주자 및 이용자의 특성

본 조사의 응답자인 거주자 및 이용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전체의 65.5%가 여성으로서 공동시설을 거주 및 이용하는 주된 계층이 고령자 남성보다는 여성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공동생활홈의 경우 모든 응답자(거주자)가 여성(100%)이었다<Figure 2>.

연령은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의 76.9%를 차지하고, 유형별로는 공동생활홈의 경우 응답자(거주자) 전체가 65세 이상 고령자(100%)이며, 공동급식시설은 79.5%, 작은목욕탕은 51.3%로 높지만 비교적 마을 주민들이 고르게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Figur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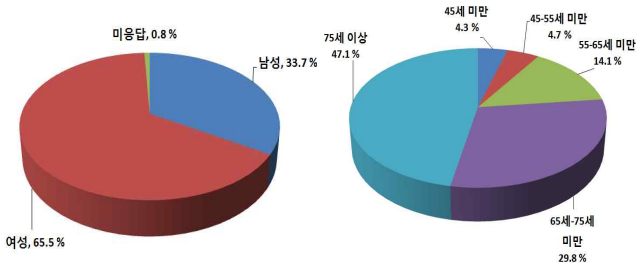


Figure 2. Gender

Figure 3. Ages

(2) 종합 주민만족도

시설 유형별·대상지별 만족도를 모두 합산한 공동시설의 종합 만족도는 78.8%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Figure 4>.

시설 유형별로는 공동생활홈이 가장 높은 81.2%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공동급식시설과 작은목욕탕은 각각 77.9%, 77.4%로서 유형별 만족도의 큰 편차가 없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조사 대상지별로는 곡성군 죽산마을 공동급식시설이 가장 높은 92.1%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서귀포시 신평

리 공동급식시설(87.8%), 김천시 삼실마을 공동급식시설(87.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만족도가 낮은 대상지는 주로 공동급식시설로서 <Figure 4>에서 보이는 것처럼 공동급식시설 B-12시설이 63.4%로 가장 낮게 나타나며, 그 다음이 B-5시설로써 64.7%의 만족도로 조사되었다.

공동생활홈의 경우, 편차가 심하지는 않으며 만족도가 가장 높은 대상지는 남해군 내산마을 공동생활홈이 84.5%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가장 낮은 대상지의 만족도는 76.7%로 조사되었다.

작은목욕탕은 본 만족도 조사의 대상지가 2개소인 것을 고려할 때, 표본의 수가 작아 단순비교는 무리가 있으나 포천시 우금리 작은목욕탕이 72.9%, 함평군 진하마을 작은목욕탕이 82.0%의 만족도로 나타났다.

(3) 시설 유형별·항목별 만족도

각 시설 유형별 조사항목에 따른 만족도를 살펴보면, <Table 4>와 같이 나타나는데, 공동생활홈의 경우 거주 부문(입지조건, 거주만족감)과 정서 부문(쾌적성, 친밀감)에서 각각 93.8%, 92.9%의 만족도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영양 및 위생 부문은 상대적으로 낮은 75.2%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동생활홈에 입주함으로써 기존의 낡은 주택에서 새로운 시설 및 공간에 거주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상대적으로 식사, 목욕, 청소, 세탁 등 생활패턴의 변화는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부 공동생활홈의 경우 입주 후 조사 시점까지 세탁기, 냉장고 등 집기가 구비되지 않은 점이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공동급식시설은 공간구성과 관련된 시설 부문과 정서 부문, 안전 및 시설이용 부문에서 80%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으로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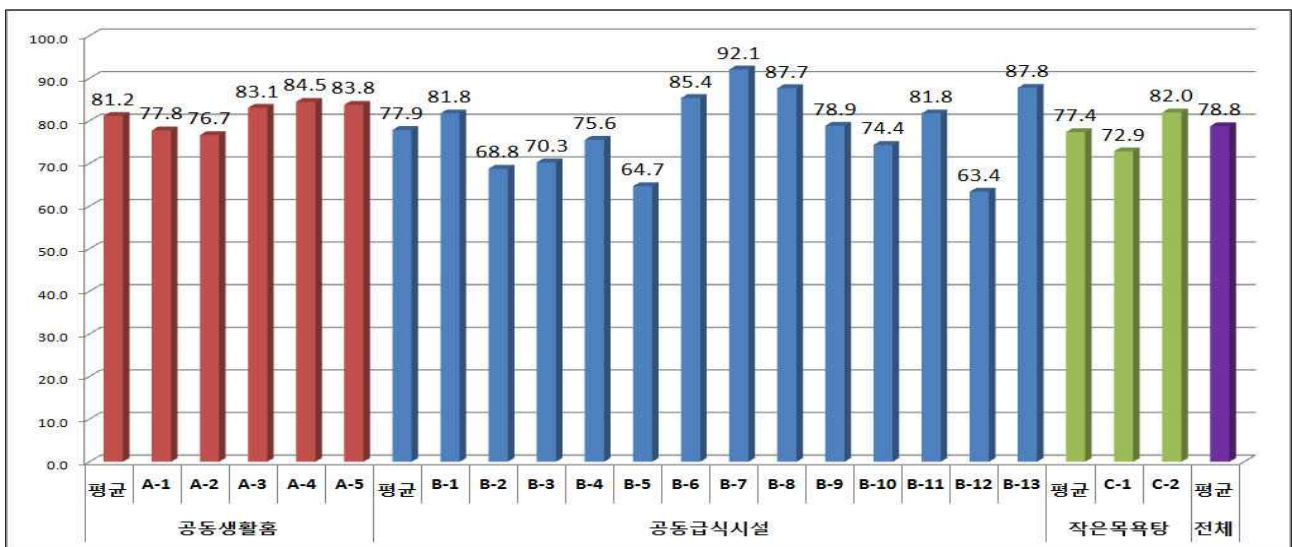


Figure 4. Total satisfaction index by target facilities

Table 4. Satisfaction by facility's type and section

유형	항목	세부항목	배점	만족도 (%) ¹²⁾	
공동생활홈	거주	입지조건 및 접근성	5	96.2	
		내부공간 및 거주만족도	5	91.4	
	정서	내부공간의 개방감 및 쾌적성	5	90.5	
		거주자 간 친밀감	5	95.2	
	냉난방	겨울철 난방비 변화 및 만족도	10	88.0	
		여름철 냉방비 변화 및 만족도	10	100.0	
	영양 및 위생	식사	식사 횟수(평균) 변화 및 만족도	10	87.6
			목욕횟수의 변화 및 만족도	10	74.3
			청소횟수의 변화 및 만족도	10	78.1
			세탁횟수의 변화 및 만족도	10	61.0
	유지관리	유지관리	거주비용의 변화 및 만족도	10	82.9
			지자체 복지서비스의 만족도	5	75.2
공동시설 운영방식			5	84.8	
소 계			100	81.2	
공동급식시설	시설	입지조건 및 접근성	5	79.2	
		내부공간구성	식당 및 주방 규모	5	86.9
			식당 및 주방 위치	5	87.9
	정서	내부공간의 쾌적성	5	86.4	
		이용자 간 친밀감	5	89.2	
	영양	식사	식사 횟수(평균)의 변화 및 만족도	10	76.2
			식사 인원(평균)의 변화 및 만족도	10	82.5
			반찬의 가지 수(평균) 변화 및 만족도	10	67.7
			음식의 질(평균) 만족도	5	79.5
			식사 비용(평균)의 변화 및 만족도	10	68.4
	안전	안전	사고 및 위협에 대한 안전성	5	85.8
			유니버설디자인(시설이용 편리성)	5	88.0
	유지관리	유지관리	지자체 복지서비스의 만족도	5	71.6
			운영비용에 대한 만족도	5	63.4
	시설이용	시설이용	전반적 시설 이용 만족도	10	83.8
	소 계			100	77.9
	작은목욕탕	시설	입지조건 및 접근성	5	79.0
내부공간구성			욕실의 규모	5	71.8
			욕탕의 크기	5	69.7
			탈의실의 규모	5	72.3
			휴게공간의 만족도	5	71.3
정서		정서	개방감 및 쾌적성	5	79.5
			이용자 간 친밀감	5	76.9
위생		위생	목욕횟수(월평균)의 변화 및 만족도	10	78.5
			시설 내 위생상태 만족도	5	84.1
			수질에 대한 만족도	5	85.6
안전		안전	사고 및 위협에 대한 안전성	5	78.5
			유니버설디자인(시설이용 편리성)	10	79.0
유지관리		유지관리	운영유지비(이용료 적정성)	10	81.5
			지자체 복지서비스의 만족도	10	73.8
	운영방식		10	78.5	
소 계			100	77.4	

12) 만족도(%)는 각 항목별 점수를 100%로 환산한 지수임

공동급식시설의 각 항목 중 중요도가 높은 영양 부문의 만족도는 74.2%로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항목 별로 보면 식사 인원에 대한 만족도(82.5%)가 가장 높아 공동급식시설에서 함께 모여 식사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 반면 식사비용 부문과 반찬의 가지 수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68.4%, 67.7%로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공동급식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용과 관련되어 지자체의 지원보다는 마을 자체적으로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이용료가 발생하고 양질의 음식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비교적 낮은 만족도로 나타난 것이다.

작은목욕탕은 각 부문에서 고르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위생 부문의 청결(84.1%)과 수질(85.6%)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목욕횟수 또한 증가하여 높은 만족도(78.5%)를 보이고 있다. 반면, 시설 부문에서 욕실의 규모(71.8%)와 욕탕의 크기(69.7%)는 이용자의 수에 비해 작다고 느끼며, 휴게공간의 만족도(71.3%) 또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시범사업이 기존 시설물의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 조성을 지향함으로써 시설 이용자 수에 비해 규모와 크기가 작게 조성된 점과 사업비 규모가 작은 점에 기인한 결과이다. 따라서 대상지의 여건과 수요를 고려하여 탄력적인 사업비 지원과 시설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세 가지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복지서비스, 운영·유지비용 등 유지관리 항목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공동급식시설의 경우 유지관리 항목의 만족도는 67.5%로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공동생활홈과 작은목욕탕은 각각 81.4%, 77.9%로서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지자체의 조례와 마을규약의 제정을 통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복지 서비스의 경우 시설조성과 동시에 프로그램이 연계될 수 있도록 사전에 담당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원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4) 이용(거주) 이전과 이후의 생활여건 변화

공동시설 조성 이전과 이후의 비교를 통한 고령자의 주거·영양·위생 여건 변화와 관련된 주요항목들을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생활여건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Table 5, Table 6>

우선 공동생활홈의 경우, 시설에 입주하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난방비가 절감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8.0%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거주 이전에는 기름과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여 월 평균 3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거주 이후에는 대부분 전기를 사용하여 월 평균 10만원이 소요되어 1인당 평균 20만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생활홈의 영양 및 위생 부문에서 식사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87.6%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식사

횃수는 거주 전 1일 평균 2.4회에서 거주 후 2.9회로 0.5회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생 부문은 목욕에 대한 만족도가 74.3%로 나타나며, 목욕횃수의 변화는 거주 전 월 평균 13.4회에서 거주 후 17.7회로 4.3회가 증가하였다. 청소에 대한 만족도는 78.1%로 나타나며, 청소횃수는 거주 전 월 평균 24.6회에서 거주 후 28.8회로 4.2회가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세탁에 대한 만족도는 61.0%로 다른 부문에 비해서 낮게 나타나며, 횃수의 변화는 거주 전 월 평균 9.8회에서 거주 후 11.4회로 1.6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부 공동생활홈의 경우 아직 세탁기가 구비되지 않아 불편함을 느끼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유지관리 부문에서 거주비용은 공과금, 주택 임대료 등 거주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말하며, 조사결과 입주 이전 월 평균 11.6만원에서 입주 이후 5.3만원으로 6.3만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만족도는 82.9%이다.

공동급식시설은 영양부문의 변화를 위주로 살펴보았는데, 식사의 횃수에 대한 만족도는 76.2%로 나타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식사횃수의 변화는 이용 전 1일 평균 2.4회에서 이용 후 2.8회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5. Life condition change by key points of community living home

구분		결과	비고
난방비	만족도	88.0%	20만원 절약
	거주 전 난방비(평균)	30만원	
	거주 후 난방비(평균)	10만원	
영양 및 위생	식사 횃수	만족도	87.6%
		거주 전 식사횃수(평균)	2.4회/일
		거주 후 식사횃수(평균)	2.9회/일
	목욕 횃수	만족도	74.3%
		거주 전 목욕횃수(평균)	13.4회/월
		거주 후 목욕횃수(평균)	17.7회/월
	청소 횃수	만족도	78.1%
		거주 전 청소횃수(평균)	24.6회/월
		거주 후 청소횃수(평균)	28.8회/월
	세탁 횃수	만족도	61.0%
		거주 전 세탁횃수(평균)	9.8회/월
		거주 후 세탁횃수(평균)	11.4회/월
거주 비용	만족도	82.9%	6.3만원 절약
	입주 전 거주비용 (평균)	11.6만원/월	
	입주 후 거주비용 (평균)	5.3만원/월	

영양 부문에서 가장 높은 82.5%의 만족도를 나타낸 식사 인원에 대해서는 이용 전 1회당 6.3명이 식사를 하였다면, 이용 후 1회당 22명이 함께 식사를 하여 15.7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식사의 질과 관련된 반찬의 가지 수는 67.7%의 만족도를 보이며, 이용 전 1회당 5.2가지에서 이용 후에는 1회당 6.6가지로 1.4가지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상대적으로 반찬의 가지 수는 공동급식시설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음식의 맛과 질의 만족도는 79.5%로서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식사를 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전체 68.4%의 만족도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지는 않으며, 식사비용 변화는 이용 전 월 평균 14.1만원에서 이용 후 월 평균 9.7만원으로 4.4만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작은목욕탕의 경우 위생 부문의 목욕횃수에 대한 만족도는 78.5%로서 비교적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목욕 횃수의 변화는 월 평균 이용 전 4.7회에서 이용 후 7.9회로 3.2회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고령자의 위생여건이 대체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Life condition change by key points of community food service facility and small bath house

구분		결과	변화 횃수
공동급식시설	식사 횃수	만족도	76.2%
		이용 전 식사횃수(평균)	2.4회/일
		이용 후 식사횃수(평균)	2.8회/일
	식사 인원	만족도	82.5%
		이용 전 식사인원(평균)	6.3명/회
		이용 후 식사인원(평균)	22명/회
	반찬의 가지 수	만족도	67.7%
		이용 후 반찬의 가지 수(평균)	6.6가지/회
	음식의 맛과 질	만족도	79.5%
만족도		68.4%	
식사 비용	만족도	68.4%	
	이용 전 식사비용(평균)	14.1만원/월	
	이용 후 식사비용(평균)	9.7만원/월	
작은목욕탕	목욕 횃수	만족도	78.5%
		이용 전 목욕횃수(평균)	4.7회/월
		이용 후 목욕횃수(평균)	7.9회/월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농촌 고령자의 주거·영양·위생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부의 시범사업 대상지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주요내용을 살펴보았다. 조사 대상지는 2014년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준공이 완료된 20개 공동시설, 총 255명의 이용자(거주자)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시설을 이용(거주)하는 주민들의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만족도를 합산한 종합 만족도는 78.8%로서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유형별로도 큰 편차 없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주요항목별로 살펴보면, 거주 비용 변화, 영양 및 위생 변화 등이 대부분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승 또는 감소하여 고령자의 주거·영양·위생 등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의 근본적인 목표를 상당부분 달성하고 있다.

둘째, 고령자 공동시설을 통해 이용(거주)자들은 특히 정서 부문에 있어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었다. 조사결과 정서 부문의 만족도는 공동생활홈 92.9%, 공동급식시설 87.8%, 작은목욕탕 78.2%로서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급식시설의 경우 시설 조성의 주된 목적인 영양 부문의 만족도는 가장 낮은 반면, 내부공간의 개방감 및 쾌적성, 이용자 간 친밀감 등 정서 부문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결국 고령자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친밀감을 느끼면서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공동시설이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부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항목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주로 거주와 시설 부문으로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통해 새로운 시설을 이용하는 점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으며, 반면 유지관리 항목은 세 가지 유형 모두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본 조사의 시점이 시설 준공 이후 운영이 이루어지는 초기에 이루어져 아직까지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정해지지 않은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단, 향후 본 시범사업 또는 공동시설을 조성하는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와 함께 운영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준공과 동시에 운영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농촌 고령자를 위한 공동시설 시범사업은 전국적으로 공동시설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열악한 생활여건 개선과 고령자 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가 노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를 통한 결과에서도 공동시설 조성을 통해 시설 부문, 정서 부문, 영양 및 위생 부문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유지관

리 부문에 있어서는 운영비용 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이 부족하여 만족도가 낮고 주민들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본 시범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공동시설 조성과 관련한 정부 정책사업 또는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고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한편, 연구의 한계로는 조사대상 시설물의 실제 운영기간이 2~3개월 이내로서 충분한 기간이 경과된 이후의 지속적인 효과를 검증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작은목욕탕의 경우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곳이 2개소로서 표본이 작아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실제 공동시설 조성을 통한 효과가 어느 정도 인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공동시설 관련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향후 본 연구를 토대로 2년 동안 진행되는 시범사업의 공동시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경과 이후 이용(거주)후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공동시설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www.kosis.kr>)
2. 김강섭 외, 농어촌지역 주거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주거 모델 개발 연구, 농림수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2010
3. 김승근, 박중신 외, 고령자 공공이용시설 사례조사 및 모델연구, 농림축산식품부, 2013
4. 김진환 외,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건축계획기준 개발,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2014
5.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추진방안, 2014

접 수 일 자 : 2015. 10. 10

심사완료일자 : 2015. 11. 20

게재확정일자 : 2015. 11. 23